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라오스



라오스에 투하된 폭탄 위치

라오스는 가장 많은 폭탄이 묻힌 나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투하한 200만 톤 가량의 폭탄으로 인해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라오스 지역 곳곳에는 제거되지 않은 폭탄들이 많이 남아 라오스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들뜬에 널린 고철을 수거하다가 불발탄 사고를 당합니다. 불발탄의 위험성을 모르는 주민들은 폭발물 잔해를 밟고르거나 농기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발탄 피해

라오스 장애인 비율



매년 불발탄 피해자



라오스의 장애인은 불발탄 폭발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피해자재활센터인 COPE Laos에 의하면 2011년까지 불발탄으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라오스인이 불발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국가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인프라와 정보에 취약해 집에만 있거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반 프안 (Ban Puean)



함께일하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반 프안(Ban Puean)은 루앙프라방의 반 상하이(Ban Xanghai) 마을에 있습니다. 반 프안은 지역 내 장애인과 청년 디자이너를 고용해 수공예 공방과 카페를 운영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불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여성 신체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직조, 재봉, 자수 등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반 프안은 라오스 문화가 가진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을 제품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SDGs: 지속가능한 자국의 발전을 위해 UN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17가지 목표

일 자리를 통한 꿈과 희망 찾기



장애인 고용률



역량강화 교육



빈곤 아동 지원



반 프안은 전체 직원의 반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로 인해 취직이 어려웠던 이들은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 프안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빈곤가정 아동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술 및 위생교육을 진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후원 사업

- 해외 빈곤가정 지원
- 국내 취업취약계층 지원

지원 내용

- 보건위생
- 교육
- 영양
- 일자리 연계

후원 방법

1 온라인

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에 접속하여 후원신청

2 전화상담

함께일하는재단 모금개발팀(02-330-0711)

3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032901-04-181772 (예금주: 함께일하는재단)



QR코드로 간편하게 후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소식지 (TOGETHER 함께+) 33호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 발행인 송필주 | 대표전화 02-338-0019 | 디자인 오즈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의 삶에
무언가를 보내면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삶으로 되 돌아온다.

—
에드윈 마크햄

